

우리가 좋아하는

EDM!

그 장르에 대해
알아보자!

201621367 이호준

EDM 안에는 여러 장르가 있다.
수십가지가 넘는 장르가 있기에 4가지만 소개하겠다.

대부분 EDM 하면 떠올리는 클럽음악은
빅룸 (Big Room)이라는 장르다.

빅룸은 큰 방이라는 뜻처럼
큰 방에서 음악을 틀어 놓은 것과 같이
쿵쿵 울리는 베이스라인과
반복되는 멜로디가 특징이다.



빅룸의 대표적인 음악으로는

Vinai – The wave 와



Martin Garrix, Afrojack – Turn up the spearkers

가 있다.



다음 소개할 장르는
프로그레시브 하우스 (Progressive House) 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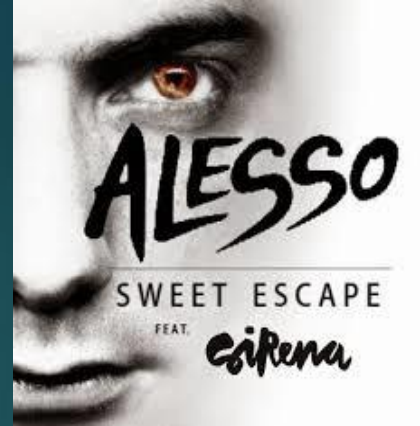
빅룸과는 다르게 서정적인 멜로디와,
희망을 주는 가사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.

최근 사람들이 좋아하는
보컬있는 EDM 의 대부분 곡들이
프로그레시브 하우스에 속한다.



프로그레시브 하우스의 대표적인 음악은

Alesso, Sirena - Sweet Escape



Kaaze, Stu Gabriel - Freedom (feat. Stu Gabriel)

이 있다.



다음 소개할 장르는
덱스텝 (Dubstep)이다.

BPM이 빠른것이 특징이며
영국 유명 아티스트의 2step 을
기반으로 하여 레게 스타일의 Dub을
섞은 것이 특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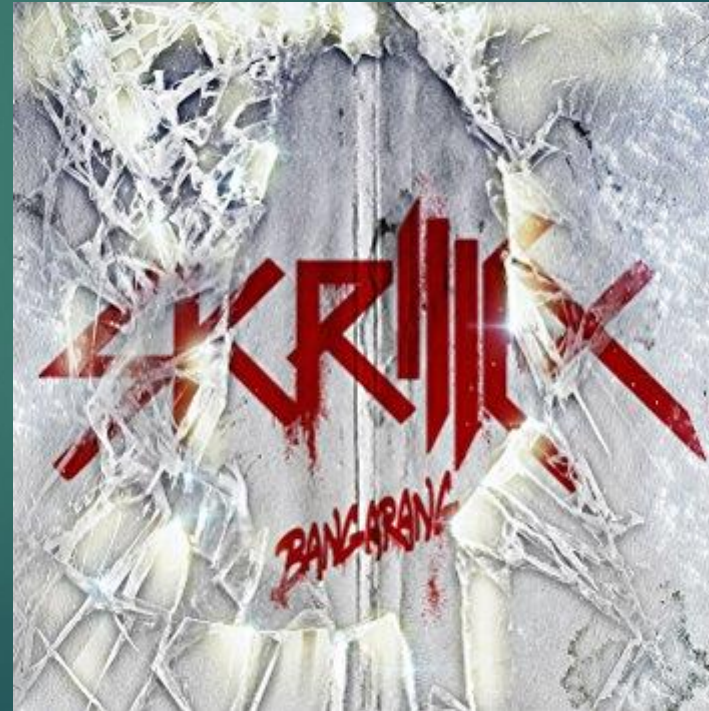
픽픽픽픽 찌르는 느낌이 든다.



DUBSTEP

덱스텝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로는
스크릴렉스가 있으며

SKRILLEX - Bangarang (feat. Sirah)
이 가장 유명하다.



마지막으로 소개할 장르는
트랩(Trap)이다.

딛이라는 뜻으로
힙합과 덩스텝을 조화시킨 것이 특징이다.
보컬이 빠진 덩스텝 힙합이라고 볼 수 있다.

반복적인 덩스텝 멜로디가 나온다.



대표적인 음악으로는

Selena Gomez - Fetish (Galantis Remix/Audio)
ft. Gucci Mane

Post Malone - Rockstar ft. 21 Savage (Crankdat Remix)

이 있다.

